

※별첨자료: KEI 검토의견 분석

1) KEI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입지적절성과 사업타당성 인정하지 않음. 사업 당시의 제출보고서(자연환경영향검토서)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

: KEI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케이블카 입지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사업예정지역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에 해당되며,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지속적이고, 이로 인해 누적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볼 수 있음."(1쪽)

"(본 사업은)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1쪽)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자연환경영향검토서'는 현장조사와 보전계획이 미흡함"(6쪽)

2) KEI는 환경영향평가가서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함.

: 환경훼손이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했음. 더군다나 상부정류장의 관광객 통제방안도 실효성 없음.

"평가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못했다고 판단"(1쪽)

"위원회 시의 당시와 비교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중략)

심의 당시와 비교하여 훼손면적 및 훼손수목량 증가

불가피하게 소실이 예상되는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 동식물종 증가

토지이용변경으로 심의 당시에 비해 환경훼손 증가"(2쪽)

"위원회에 제출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자연환경영향검토서'는 현장조사와 보전계획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조건이 충족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필요함."(6쪽)

"본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는 공원구역 내외 시설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훼손면적이 나 훼손수목량이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 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되어 있어 위원회의 조건부 심의와 배치되고 있음."(6쪽)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서 제시된 훼손 수목의 양과 면적 등은 위원회의 조건부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훼손의 정도가 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건부 심의결과와 배치됨."(7쪽)

"산책로로부터 관광객이 이탈하는 경우 백두대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산책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광객을 제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함."(11쪽)

3)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 부실, 오류 지적

: 동식물상 조사지역 허위작성, 부실조사, 백두대간 훼손 누락, 자료상의 오류 등

"(식물상 현황조사 관련) 평가서에는 100m를 중점지역으로 설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기술하였으나(165쪽) 금번 초안에 제시된 식물상 조사경로(162, 164쪽)와 법정 보호식물(210-212쪽)은 대부분 지주와 삭도노선만을 정밀 조사함."(3쪽)

"초안 평가서에 제시된 식물상 조사내용이 현장의 현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분포에 차이가 존재하여, 조사결과가 불일치"(3쪽)

"(동물상 현황조사 관련) 동물상의 직접영향권 500m와 간접영향권 1,000m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고 명기하고 있으므로(159쪽), 지주 등 시설물설치 지역에 대해서만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말고 각 범위별 조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함"(3쪽)

"양서 파충류 조사는 2계절의 결과만 제시되어 종의 다양성 및 서식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이 미흡"(3쪽)

"산양 정밀조사 경로가 대부분 지주 4번 이하에서 이루어져 노선 전체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5쪽)

"평가서(초안)에서는 사업시행으로 백두대간에서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899쪽)하고 있으나 상부정류장은 끝청 산정부가 발달한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백두대간에 입지하고 있음."(11쪽)

"평가서에 제시된 각 지주별 지형특징은 해당 지역의 정밀측량을 통해 제시된 결과가 아닌 것으로 판단" "지주 부지의 경우 지형도 자료를 이용하면 상당한 오차를 가질 수 있으며 사면의 경사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12쪽)

"각 지주 부지와 관련된 자료상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

하여야 함.“ [아래사항은 생략] (12쪽)

4) KEI가 사업대상지역에 대해 아고산대, 산양 주서식지 인정

: 이 부분은 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논란이 되었던 점임. 양양군은 아고산대가 아니고 산양의 주서식지가 아니라고 주장함. 하지만 KEI는 사업계획대상지가 아고산대임을 인정하고, 산양 주서식지일 가능성을 인정함.

"지주 4번 이상 지역이 산양의 주 서식지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4쪽)

"상부정류장(해발고도 1,480m)은 보전가치가 높은 아고산대 식생이 현존하고 있고 다수의 법정보호동식물이 서식 출현 이동하는 지역이며, 특히 인위적 영향(사람의 출현, 완래, 탐장, 체취, 소음, 진동, 삭도공사시 및 운영시의 소음, 진동, 야간조명 등)에 매우 민감한 멸종위기동물들(산양, 담비 등)이 서식, 출현, 이동하는 지역임."(7쪽)

5) KEI는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 예상

: 양양군은 케이블카로 인한 식생훼손이나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KEI는 산양을 비롯한 동물과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지주위치의 훼손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공사 시 소음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동물들이 주변으로 회피하는 것으로만 영향을 예측하고 있음. 헬기이용으로 포유류, 조류, 곤충류들의 짹짹기, 번식/산란, 먹이활동, 영역활동 등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5쪽)

"곤돌라가 빈번하게 운영되는 낮 시간에는 시설물 운영 전과 다르게 동물의 서식활동 및 이동이 지속적으로 교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5쪽)

"낮에도 활동하는 멸종위기종 산양, 담비, 삵 등은 삭도 운행으로 인하여 이동이 방해받을 경우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개체군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5쪽)

"사업예정부지가 훼손될 경우 복구 및 복원이 어려움. 다른 국립공원의 복구 및 복원 사례를 참조해 볼 때, 한 번 훼손된 능선부 경사면, 특히 아고산 지역의 생태계는 복구가 쉽지 않으며 인위적인 훼손이 가해질 경우 복구가 어려울 것임."(8쪽)

"평가서에는 2,3,4,5,6번 지주에서의 훼손 면적을 각 지주위치의 지형적 여건을 고

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875㎡으로 예상하였음. (중략) 공원지역 내에서 자연성을 훼손하는 면적인 875㎡보다는 큰 면적이 될 것으로 판단됨."(12쪽)

"사업지구는 능선축의 정상부로서 고지대, 급경사 지역, 암반 지역이 겹치는 지역으로 식생의 생육에 필수적인 토양의 발달이 미약하여 매우 민감한 지역에 해당함."(13쪽)

6) KEI는 사회적 갈등 해결 필요 인정

: 국회는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원주환경청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히자 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KEI는 양양군과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위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함을 밝힘.

"본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 여론도 적지 않은 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적 과정의 법적인 요건이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갈등노력이 필요함."(14쪽)

7) KEI는 사업계획 축소 요구함.

: 상부정류장의 면적 축소 등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

"멸종위기동물 개체군의 보전을 온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번에 제시된 상부정류장의 토지이용계획을 더욱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부정류장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과 상부정류장의 복단 경계를 끝칭으로부터 더욱 이격시키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7쪽)